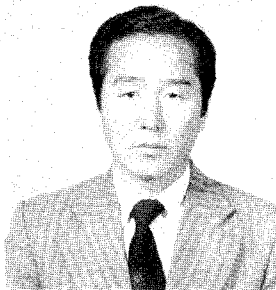




제 17차 세계가금학회가 개최되는

핀란드의 양계산업



정 선 부

(농학박사, 축산시험장 기금과장
한국가금학회 및 WPSA-K 상임이사)

1. 서 론

제 17차 세계가금학회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1984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개최키로 되어, 우리나라 양계인들이 이 회의에 많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최근의 핀란드 양계산업에 대하여 소개코자 한다.

핀란드의 양계산업은 다른 양계 선진국에 비하여 닭의 사육규모나 사육수수는 상당히 적으며, 이 나라의 양계산업은 옛부터 농업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왔다. 이 나라의 양계 생산물 소비량을 보면 국민 1인당 닭고기의 소비량은 3.5kg, 계란은 200개로서 닭고기의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2.85kg보다 약간 많으나 계란의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15개 보다 85개가 많다.

2. 채란업

최근의 산란계 사육수수는 5백만수이다. 채란계 사육농가수는 2만3천호로 집계되고 있는데, 2만3천호 중 약 50%에 해당하는 채란계농가는 50수이하의 규모이고, 유통 계란의 54% 이상을 1,300호의 대규모 양계농가에서 생산한다. 4,000수 이상 사육농가는 140호에 지나지 않으며, 10,000수 이상 사육농가는 10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 나라의 양계산업은 호당 사육규모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영세하지만, 계란의 생산량은 국내 수요량의 15%를 초과하고 있다. 이와같은 계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양계업으로부터의 소득을 농가소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000수 이상의 채란계를 기르는 양계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조치하여 전업 양계의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가족경영단위의 농가 양계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산과잉으로 인한 계란값의 하락을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농가가 출하하는 계란값은 정부와 양계업자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산란계의 사육형태는 70~80%가 케이지 사육이고, 나머지는 평사로 사육하고 있다. 계사 시설은 혹심한 추위때문에 단열재를 많이 넣어 계사의 보온에 치중하고 있는데, 계사를 지을 때

기초는 1m 이상의 깊이로 하고 있으며, 신형계사에서 계사의 크기는 1동당 15,000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짓기 때문에 계사 건축비가 상당히 높다.

이 나라의 '82년도 계란 생산량은 11억5천만개로 추정되는 바 산란계 1수당 평균 230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란은 등급별로 분리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1등급은 60~65g, 2등급은 55~60g, 3등급은 50~55g으로 분리하며, 6개, 10개, 18개로 포장하여 소매하고 있다. 계란은 포장상자에 생산월일을 기입하도록 하여 적정 보관기일이 지난 계란을 가공 공장으로 보내 가공용 계란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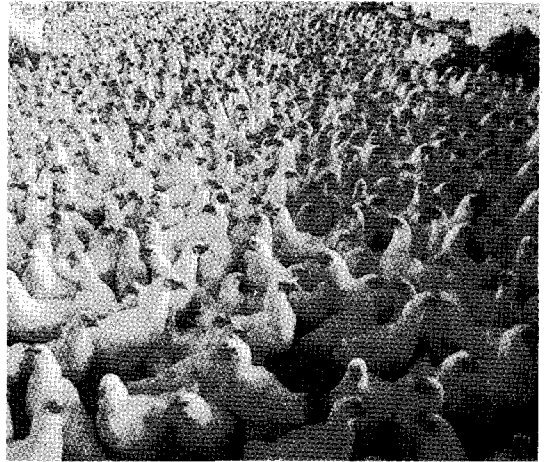
이 나라에서 과잉 생산된 3억8천3백만개의 계란은 360개씩 포장하여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보상하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 물량의 50%는 소련에 수출하고 있다.

3. 육계산업

핀란드의 육계산업은 정부에서 일체 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육계의 가격도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 나라의 육계산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로서 육계 사육농가는 약 100호이고 이들이 연간 1천2백만 수의 육계를 생산하고 있다.

육계의 평균 사육규모는 20,000수이고, 이중 일부 육계 사육업자는 도계장과 연간 계약을 하여 육계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가 사육한 육계의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육계는 44일령 1,620g에서 연간 6회전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이를 도계하면 가식 닭고기 중량은 1kg 정도가 된다. 육계는 대부분 평사로 사육하며, 생존율은 97%, 사료요구율은 1.9~2.0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우수한 편이다. 육계사료는 육계 전기사료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341원이며, 육계 후기사료는 전기사료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도계장은 전국에 5개가 있는데 이중 3개소는 협동조합에 속해 있고, 2개소는 민간도계장이다. 협동조합 3개소에서 처리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70%로서 연간 8백 40만수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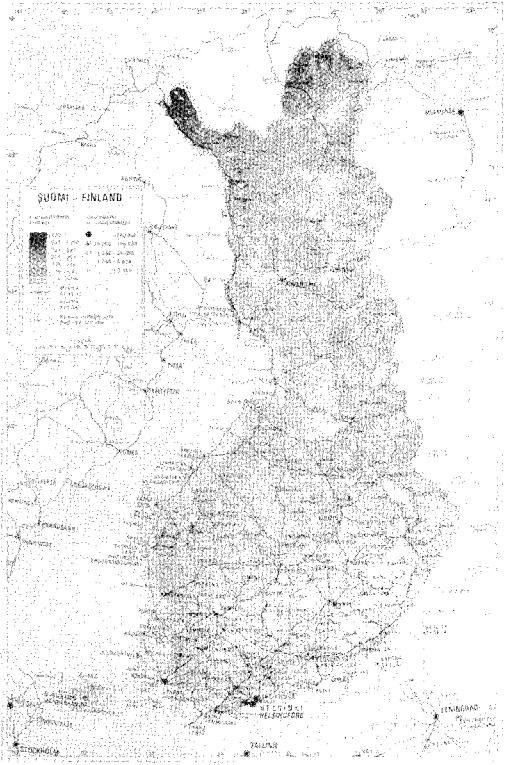
하며, 나머지 2개 민간도계장에서 3백60만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도살된 육계는 모두 'KOKKI'라는 동일한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육계 생산량에 대비하여 닭고기소비 증대를 위해서 T.V.에 많은 선전을 하고 있다.

4. 종계 개량 사업

핀란드의 종계개량사업은 주로 산란계에 한 하고 있으며, 육계에 대한 육종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이 나라에 10여개의 종계 개량회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5개 개량회사는 없어지고 5개 개량회사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MA-16과 L.S.K.라고 불리우는 2종의 산란용 종계가 전국 종계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육용계는 육종회사가 없는 대신 육용종계는 전부 외국으로부터 G.P.S.를 수입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주된 품종은 「필취」이며, 8개월간의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육계의 생산과 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G.P.S.의 수수는 육계 사육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입 육용종계는 60~63주령에 도태시킨다. 이 기간중 수당 172개의 종란을 생산하며 성적이 좋은 경우는 수당 191개의 종란을 생산하는데 종계의 폐사율은 4.9%, 입란대 부화율은 87% 정도이다.



5. 양계사료 생산

핀란드는 식량 이외의 가축용 곡류사료는 도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사료가격은 핀란드 양계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할 뿐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사료공장간의 경쟁때문에 가격 상한선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수입 원료사료는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의 15%에 지나지 않는데 수입 원료사료로서는 어분, 대두박, 미네랄, 비타민, 첨가제 등인데 이 중 어분과 대두박의 수입물량은 전체 수입원료사료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양계사료 배합율은 곡류가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곡류중 60%가 보리이고 30%는 연맥이며, 나머지 10%는 사료용 밀을 사용하고 있다. '82년도 양계사료 생산량은 25만5천톤인

데 이 중 육계사료가 43천톤을 차지하고, 나머지 21만5천톤 산란계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산란계 1수가 연간 소비하는 닭 사료량은 43kg이며, 체중 1,620g 육계 1수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료량은 3.6kg이 된다.

6. 양계관계 연구

핀란드는 ARC(Africa Natural Research Center)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총 9개의 연구분야 중 2개 분야가 축산관계 연구분야이고, 닭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2,000수를 수용할 수 있는 단사케이지계사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ARC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대부분 닭의 육종을 위한 연구사업이다. 그 외 연구사업으로서는 닭 사료의 조단백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나라가 값이 비싼 단백질 원료사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원료사료 수입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ARC에서는 저단백질 사료조건하에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품종개량을 실시하여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고 있다. 그 외 산란계의 일령별 아미노산 요구량에 관한 것도 실시하고 있다.

7. 닭 질병

핀란드의 닭의 생산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위생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나라는 뉴캐슬병, 추백리 및 계두가 없는 양계 천국이다. 이 나라가 이처럼 닭 질병이 없는 양계천국이 된 이유는 양계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잘 훈련된 질병관계 기술자가 많고 외국계를 수입할 때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가금질병에 대한 연구로서는 육계에 있어서 살모넬라 방역에 대한 연구가 고작이다.

대체구좌번호 변경 010017-31-519272